조선후기 경기 비구니 법맥 발굴하다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

한국 비구니의 역사는 한국불교사와 궤를 같이 하지만 전근대 비구니 연구는 빈약하다. 조선 왕실 사찰과 비구니사를 연구하는 탁효정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최근 한국불교학회 학회지 〈한국불교학〉에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을 발표했다. 조선후기 강화 · 개성 일원에서 활동했던 비구니 스님들의 면면과 법맥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일부를 발췌 ·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화 청련사 전경. 조선 후기 중창 비구니 포겸 스님이 중창해 현재까지 비구니 도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 비구니의 역사는 한국 불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유서 깊지만 전근대 비구니 연구는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다. 조선시대 비구니 사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지(寺誌)와 불서(佛書)의 시주질, 사찰 관련 고문서, 불화 화기(畵記) 등 조선시대 사료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비구니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비구니 사찰의 분포와 비구니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 각종 사료에 등장하는 비구니 법명을 DB화하고 이에 기반해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사찰을 유추하는 토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기 서북부의 비구니 사찰을 파악하기 위해 전등본말사지와 전등본말사에 남아있는 고문서, 불화의 화기, 불복장(佛服藏) 발원문 등을 조사했고, 이들 기록에 실린 비구니 명단을 토대로 경기 서북부 일대에서 비구니들이 거주한 사찰을 파악했다. 특히 '전등본말사지'에는 비구니사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료가 수록돼 있는데, 사지 편찬 당시 전등본말사에 속한 비구니들의 계파를 정리한 '전등본말니중파계(傳燈本末尼衆派系)'가 실려 있다. 이 비구니 계파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근세~근대 비구니 법맥(法脈)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전등본말사의 비구니 분포

'전등본말사지'와 강화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 연구, 한국의 불화 화기집, 한국의 사찰문화재 등에 수록된 니승(尼僧)의 명단은 총 41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사미니 13건, 행자는 1건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400건은 니(尼) 또는 비구니(比丘尼)로 표기됐다.

이중 조선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 니승의 명단은 177건,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명단은 121건, 활동연대가 기재되지 않은 명단은 116건이다. 17세기 이전에 활동한 사례는 1건도 확인되지 않았고, 18세기에 활동한 비구니 명단은 13건, 19세기는 130건, 20세기 초는 29건으로 조사됐다. '전등본말사지'에는 정확한 활동시기를 알 수 없는 비구니 명단이 다수 기재되었는데, 전등본말사에 속한 비구니들의 계보를 정리한 '전등본말니중파계'에 113명의 명단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계파도 내에 이들의 출가 및 활동 시기가 기재되지 않아 조선시대 비구니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조선시대 니승 177명의 명단 중 중복되는 법명을 정리하면 총 114명이다. 이 가운데 사미니는 3명이고, 니 또는 비구니로 기재된 인물은 111명이다.

전등본말사 문건에 나타난 비구니들의 활동은 대체로 19세기에 집중돼 있다. 정수사, 원통암, 대흥사, 청련사, 전등사, 화장사 등에서 비구니들이 화주 또는 시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의 문건들은 강화 정수사의 문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초 비구니 정일의 주도 하에 건물 중수 및 불상 개금 등 사찰의 일신이 이뤄졌기 때문에 많은 문건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전등본말사 사료에 수록된 117명의 니승 가운데 비구니는 114명, 사미니는 3명으로 조사됐다.

비구니들이 담당한 소임은 대부분 화주 또는 시주였으며, 별좌(別座) · 공사(供司) · 별공(別供) · 봉다(奉茶) · 공양주(供養主) 등 공양물을 담당하는 소임을 맡기도 했다. 177건의 니승 명단 가운데 화주로 등장하는 내역은 총 103건에 달한다. 시주는 21건, 공사 4건, 도감 3건, 별공 8건, 별좌 5건, 봉다 1건, 공양주 1건을 확인했다.

비구니의 소임 중에서도 화주가 가장 많이 조사된 것은 사지에 실린 대부분의 사료가 중수기이기 때문이다. 중수기에는 불사의 경제적 주축을 담당한 화주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했다. 시주자의 명단은 지면상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화주로 역할을 한 인물들은 대부분 중수기 말미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다수의 화주 비구니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의 사회적 분위기상 여성 신도와 비구니의 대면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점도 비구니 화주가 많았던 요인으로 추측된다.

'전등본말사지' 사료 분석 통해
강화 · 개성 등 비구니 활동 조명
청련사 등서 독자적인 수행 생활
사지 부록 '전등본말승니계파'서
1930~40년대 비구니 법맥 확인

전등본말사 비구니 거주 사암

전등본말사 관련 자료에서 비구니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암은 총 8곳으로, 강화 전등사, 정수사, 청련사, 원통암, 장단 화장사 미타암과 극락암, 개풍 원통사 내원암, 대흥사 등이다. 강화 전등사와 장단 화장사, 개풍 원통사는 비구들이 주요 소임을 맡았고, 비구니 활동에 관한 문건은 매우 적다. 비구니들의 독립 사암으로 확인되는 곳은 강화 청련사, 원통암, 정수사, 장단 화장사 미타암, 개풍 원통사 내원암이다.

강화 청련사는 오늘날까지 비구니 도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찰이다. 조선시대 청련사의 첫 기록은 1821년(순조21) 비구니 포겸(包謙)이 화주로 역할해 청련사를 중건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1906년(광무10) 화주 비구니 계근(戒根)이 단청불사를 진행했으며, 1909년(융희 3)에 화주 비구니 선혜(善慧)가 산신각을 새롭게 지었다는 기록을 통해 청련사가 비구니 사찰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련사에는 19세기에 조성된 다수의 불화 화기가 남아있는데, 비구니뿐만 아니라 비구들이 화주와 시주, 공역을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강화 원통암은 오늘날 청련사에 합사돼 원통전이라는 전각 이름으로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 원통암과 청련사는 각각 개별 사찰이었고, '전등본말사지'에도 원통암이 청련사의 부속암자가 아닌 전등사의 독립 말사로 분류돼 '원통암지'가 별도의 장으로 실려 있다. 하지만 청련사와 원통암이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에 간행된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청련사가 국정 아랫절로, 원통암은 국정 윗절로 기재돼 있다.

강화 정수사가 비구니 사찰로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세기 중반이다. 함허의 중창 이후 약 400년간의 기록이 끊어졌다가 1848년(헌종 14)에 화주 비구니 법진(法眞), 만흥(萬興) 등이 법당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1878년(고종15) 비구니 성수(性修)의 탱화 불사, 1883년(고종20) 비구니 근훈(根訓)의 사찰 수선, 1888년(고종25) 비구니 정일의 관음상과 후불탱의 조성, 1916년 정일의 불상 개금 및 신중탱 불사 등이 이어지는 등 비구니들의 정수사 운영은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미타암은 장단 화장사의 부속암자이다. 조선후기 화장사는 비구들의 주도로 운영되었지만, 화장사의 산내암자인 미타암은 비구니들의 독립 암자로 운영됐다. 화장사의 산내암자인 극락암도 비구니들의 거주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통사는 경기도 개풍군(現 황해도 장풍군) 성거산에 있던 사찰로,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통사는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거주했으며, 비구니들은 원통사 산내암자인 내원암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등본말사지의 비구니 법맥

전등본말사지 제5편에는 '전등본말승니계파'(傳燈本末僧尼派系)가 실려 있고, 부록으로 '전등본말니중파계'(傳燈本末尼衆派系)가 수록돼 있다. '전등본말니중파계'는 현재까지 알려진 비구니 법맥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조선말~근대에 이미 비구니 법맥이 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등본말니중파계'에는 청련사, 화장사, 원통사, 정수사 등 네 사찰별로 비구니 113명의 명단이 계파별로 수록돼 있다.

'전등본말니중파계'는 이미 1930~40년대에 비구니승가의 계파 및 법맥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전등본말니중파계'에 수록된 비구니 계파 가운데 오늘날 비구니 문중으로 소개된 계파는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청련사의 박영함(朴榮含)의 5세손인 한성탄(韓聖坦, 1911~2007)의 제자들이 현재 강화 백련사를 중심으로 법맥을 계승해오고 있다. 조선후기~근대 전등본말사의 비구니 법맥이 오늘날까지 강화도에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계파의 후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등본말사의 고문서에 나타난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 활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기 서북부의 비구니들은 강화도와 개성 주변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비구니의 활동이 확인되는 8곳의 사암은 모두 강화도 내에 있거나, 개성 주변에 위치한 사찰의 부속암자였다. 이들 지역은 고려의 수도 또는 임시수도의 인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비구니들은 해당 지역의 사찰과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화도 내에 위치한 비구니들은 전등사의 불사에 빈번하게 화주로 참여했고, 자신이 소속된 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의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셋째, 비구니들은 독립된 비구니 법맥을 유지했다. 전등본말사지에 실려 있는 '전등본말니중파계'을 통해 4곳의 사찰에서 각각 비구니들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에 비구니들의 수행 문화가 이어져왔고, 비구니들이 독자적으로 사찰을 운영하며 비구니 승가를 유지했음을 확인했다.

탁효정 연구교수는

안동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보신문 기자, 미디어붓다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조선 왕릉의 사찰〉이 있다.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